

재림의 징조 3: 이슬람의 정체와 확산과 위험

성경 말씀: 딛2:11-13절, 지금은 마지막 때

- 재림의 징조: 1. 노아의 때 유전자 조작, (*) 인간복제, 과학 기술의 발전, 인공 지능, 안면 인식 등 철저한 인간 통제, (*) 동성애(동성 결혼), 사회주의/공산주의 전체주의 시스템, 적그리스도 등장
2. (*) 유대인들의 귀환: 1948년 5월 14일 나라 수립, 1967년 6일 전쟁, 구 예루살렘 성전 산 확보
트럼프 예루살렘 수도 인정, (*) 대사관, 제3 성전 등, 이에 따른 극심한 반대
3. (*) 이슬람에서는 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예수님 재림의 가장 강력한 증거, 이슬람의 확산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마귀의 대립, 하나님이 잠시 전쟁 허용, 역사는 영적 전쟁터

재림의 때는 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때:

이때에는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 성도들과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극도로 핍박을 받는다.

특히 메시아를 낸 유대인들에 대한 극도의 핍박: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난(마24:21).

유대인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적그리스도의 세계단일정부: 정치와 종교 문화

(*) 일단 천주교 교황을 중심으로 세계 종교가 하나로 통일되고 있다(계17장의 음녀 시스템).

그런데 단순한 종교로는 안 된다.

(*) 극도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종교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이다. 이슬람 카바 신전

(*) 에스겔서 37-39장,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옴, 그 뒤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을 박멸하기 위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 여기의 핵심은 러시아, 이란, 터키, 시리아, 리비아 등이다.

(*) 이를 위해 과거의 페르시아 즉 이란이 등장하여 이스라엘 위협

이에 대해서는 아삽의 시편 83편도 정확하게 증언한다.

유튜브 <트럼프 이란 핵협정 파기와 성경 예언에 따른 이란의 최종 운명>

오늘 3시간에 걸쳐 <이슬람 정체 확산 위험>, <이슬람의 형성 역사 교리 샤리아 법>, <예멘 난민 사태>

이슬람의 확산

(*) 이슬람, 현재 가장 급성장하는 종교, 종교 인구 면에서 세계 제2위

(*) 심지어 불신자들도 알아야 한다. 제주도 500명이 넘는 예멘 난민 사태로 한참 시끄럽다.

(*) 2017년 8월 9일, The Pew Research Center <전 세계 이슬람 동향 보고서>

2015년 전체 인구 73억, 2위 이슬람 18억(전체 인구의 24%), 1위는 기독교 관련 23억
이슬람의 문제: 이슬람은 어디서나 동일한 믿음, 반 기독교, 반유대교, 절대 동화되지 않는다.

기독교 인구의 절대 다수: 23억이라는 수치는 기독교 혈통, 문화, 아마도 실제 구원받은 사람은 아마 1억 이하)

The Pew Research Center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이슬람은 21세기 후반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물론 현재 기독교계가 전 세계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슬람의 성장세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기에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2070년쯤이면 기독교가 가장 큰 종교의 자리를 이슬람에게 내어줄 것으로 보인다.

(*) 이 보고서는 주요 종교 가운데 그 성장세가 인구 증가율을 넘어선 종교는 이슬람 밖에 없다고 기술한다.

앞으로 2010년부터 2050까지 이슬람은 73%의 수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여하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 집단은 이슬람 밖에는 없다.

현재 이슬람은 의심할 여지없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 난민 사태와 이민으로 유럽 이슬람화, 가장 큰 문제는 다문화 정책

다문화 정책이란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유럽에서 1970년대부터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도와주면서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정책이다.

문화라는 것은 지역 조건에 맞게 혹은 역사적 배경에 따라 독특하게 형성된 자신들만의 집단 습관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이 어느 특정 지역에서 오래 살려면 그 지역의 풍습에 동화되고 어울려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선은 언어를 배워야 하고 그 지역만의 독특한 예의범절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토착민들과 동화 돼야 마찰 없이 평화공존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은 다문화 평화공존을 교리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무슬림들은 이교도들을 절대로 친구로 삼지 말라고 강조하는 꾸란 구절이 한 두 구절이 아니다(꾸란4:139~144, 꾸란3:28 등). “기독교 유대교인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꾸란5:51)며 특정 종교를 대상으로 관계 단절을 촉구하는 구절도 있다. 이런 구절들 때문에 무슬림들은 타문화권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에서도 최근 몇 년간 엄청난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무슬림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2050년에는 10%의 유럽인들이 무슬림이 될 것이라 한다.

많은 서양 사람들은 이슬람이 중동의 종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이슬람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다.

(*) 인도의 경우에는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의 유입과 성장으로 전통적인 힌두교 집단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 네팔의 경우

(*) 미국에서도 무슬림의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 반 이슬람 정책

(*) 러시아와 구 동구권도 이슬람 천지(상트페테르부르크)

포교를 위해서라면 살인, 강간, 거짓말, 테러까지 서슴지 않는 무슬림의 침탈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슬람 전체 인구 17-18억, 0.1% 즉 1000명 중 한 명만 이슬람 원리주의자, 170만 명(자살 폭탄 테러 가능성 있는 사람들)

즉 대다수 무슬림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해도 극단주의자들이 이미 2-300만 명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람들조차도 타문화 배격

우리나라도 지난 몇 년 동안 동북아의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무슬림들의 집요한 공격으로 자본과 인력을 동원한 수쿠크와 할랄이라는 지하드를 경험한 바 있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슬림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단순한 포교의 결과가 아니라, 이들을 통해 전 세계를 혼란(Chaos) 속에 빠뜨리려는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치밀한 계산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림의 징조

(*) 무슬림을 통해 발생한 사회적인 혼란을 새로운 세계 질서(New World Order)를 수립하는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뜻이다. One world government

(*)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 통치, 수많은 사람들 순교

(*) 계20:4의 첫째 부활

(*) (*) 목이 베이는 참수형을 지금도 실행하고 있는 종교: 이슬람

이슬람에 대한 전 세계적 공포

(*) 2001년 911 테러, 이슬람 과격분자들

9.11 테러: 발생했던 항공기 납치 동시다발 자살 테러이다. 이로 인해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이 붕괴되고 버지니아 주 알링턴 군의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 공격받아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약 3,000명이 사망하고 최소 6천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 ISIS,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테러 단체이다. 주로 이라크, 시리아를 중심 거점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테러를 범하고 있다.

(*) 이들은 2003년부터 유일신과 성전이라는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시작해 시리아 내전, 이라크 내전에 참여했으며, 2014년 6월 29일에 칼리파 국가 수립을 선포한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의 반군 집단이자 미승인국. 실질적으로는 그냥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

전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자살 폭동 등 테러, 2014년 테러 사망자 3만 명

(*)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슬람 무장 단체가 자행한 테러 기록을 집계하고 있는 미국의 사설 웹사이트 '릴리전오브피스에 따르면 9·11테러 이후 2015년까지 15년간 이슬람 세력에 의한 테러 사건은 28,244건이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약 19만 명이고 부상자는 약 26만 명이라고 한다.

<http://www.thereligionofpeace.com/>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2001년 9·11 테러 이후 2016년까지 이슬람 세력들이 행한 테러들의 명단이 연도별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가 아니라 무서운 테러를 일으키는 사악한 종교임을 보여 주는 실제적인 기사들과 분석 자료들이 자세히 들어 있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종북주의자들과 비슷하다.

이슬람 전 세계적 상황 요약

엄밀한 의미에서 이슬람은 단순한 종교 체제가 아니다.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 이슬람은 완전하며 완벽한 100% 생명 조직체이다. 이슬람은 종교적, 법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군대적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 특히 종교적 요소는 모든 다른 요소들을 숨기기 위한 턱수염 같은 역할을 한다.

(*) 지하드라는 거룩한 전쟁을 통해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목표이다.

20세기의 파시즘+나찌즘, 1,2차 세계대전 5천만 명, 공산주의 1억 명,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슬람, 17억이 이 안에 갇혀 있다.

한 국가의 이슬람화는 그 나라에서 종교적 특권을 얻기 위해 선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무슬림들이 충분히 있을 때 시작된다.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관용을 베풀며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가 종교적 특권들을 주장하는 무슬림들의 요구에 동의할 때 다른 요소들의 일부가 거기로 살짝 끼어들어온다. 무슬림 인구가 2% 미만이면, 그들은 대부분 다른 시민들에게 위협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소수로 간주된다. 미국 호주

전체 인구의 2-5%가 되면, 무슬림들은 다른 소수민족들과 또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룹들 - 주로 감옥의 죄수들과 길거리의 갱들 - 에서 개종자를 만들기 시작한다. 덴마크 독일

전체 인구의 5%가 넘으면, 무슬림들은 인구 비율에 비례해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프랑스(8-10%) 전체 인구의 10%가 되면, 그들은 자기들이 처한 상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무법 상태 혹은 무정부 상태를 확산시키려 한다. 케냐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면, 그런 나라들은 사소한 일로 인한 일촉즉발의 폭동, 지하드, 민간무장단체 형성, 산발적인 살인, 그리고 기독교 교회와 유대인 회당이 불타는 일을 겪게 된다. 에티오피아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되면, 그런 나라들은 광범위한 대학살, 상습적인 테러 공격, 그리고 지속적인 민간무장단체의 무력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 레바논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되면, 그런 나라들은 이슬람에 순응하지 않는 다른 모든 다른 종교 신자들을 자유로이 속박하고, 산발적으로 대량 학살을 통해 소수 민족들을 박멸하며, 샤리아 법을 무기로 사용하고 비무슬림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지즈야'를 내게 만든다. 말레이시아, 카타르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되는 국가에서는 매일 위협이 있고 난폭한 지하드가 이루어지며 국가가 주도하는 민족 청소 같은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면서 비무슬림들은 나라 밖으로 추방됩니다. 방글라데시, 이집트

전체 인구가 100% 무슬림이 되면 '다르 에스 살람'(Dar-es-Salaam) 즉 이슬람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들어간다. 이런 단계에 이른 국가에서는 국민이 모두 무슬림이기 때문에 평화가 있어야 하고 마드라스(Madrass 혹은 Madrasa)라 불리는 이슬람 학교들만 존재하며 이슬람 경전인 꾸란만이 유일하게 그들이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된다.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와 같이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10% 정도 되는 나라들에서는 소수인 무슬림들이 자기들만의 게토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런 게토에는 100% 무슬림들만 존재하며 이슬람의 샤리아 법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다. 심지어 그 나라의 경찰들도 그들의 구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거기에는 국가의 법원이나 공립학

교나 비무슬림 종교 시설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슬림들은 다른 사람들이 섞여 사는 일반 지역사회로 나와 통합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슬람 난민을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왜 미국이 반 이슬람 정책을 펴는가?

이슬람교 바로 알기 책 소개